

반 송 월 보

1985. 7. 7

제 4 호

솔 주 려

발행 : 반송동천 주교회

【창원시반송동 10-6】

T. 82-0985. 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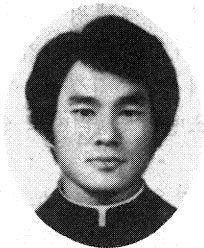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은진 (도마니냐)

원장수녀 : 은호노라다

〈목자의 소리〉

『김 대건 신부 축일에』

이은진 신부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총 아래에 누리는 풍요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무더운고 지루한 장마 속의 7월에 건강한 생활이 되시길 아울러 기도 드립니다.

7월 5일은 최초의 사제이신 聖 김 대건 안드레아 신부 대축일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나 1836년 15세 어린 나이로 사제가 되겠다는 의지를 안고 중국 광활한 대륙을 건너 마카오 까지 6개월여의 기나긴 여정을 밟습니다. 15세 소년이 걸어서 경계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역만리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도 사제가 된다는 꿈, 의지 앞에는 불가능의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837년 시작된 신학교의 길고 험한 길은 1845년 8월 17일 상해 부근 금가항성당에서 서품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1784년 조선 교회가 창설된 지 61년 만에 처음으로 방인사제를 맞게된 본인이나 교회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겠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김 대건 신부는 조국 근대사에서 한 사제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정표적인 존재였습니다. 최초로 서양 학문인 철학과 신학 및 라틴어 불어등

외국어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최초의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제는 이렇게 대단하게 또 어렵게 사제가 되고 또 어렵게 어렵게 고국에 돌아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목생활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846년 6월 5일 체포되어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시고 맙니다.

1925년 로마에서 복자위에 오르시고 1984년 기억에도 생생한 요한바오로Ⅱ세에 의해 여의도에서 성인품에 오르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제들은 김신부님을 우리의 주보 성인으로 모십니다. 이는 그분의 그 고귀하고 열정적인 사제상을 조금이라도 닮고자하는 원의에서 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축일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집니다. 1세기 전 그분이 사목하시던 실정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외양은 다를지 몰라도 내면적 어려움은 같다고 여겨 집니다. 노사문제, 농민문제, 학원문제등은이런 점을 대표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경계의 눈길을 받고있고 고심을 겪는것이 우리 교회이고 신자들입니다. 우리 본당이 속한 창원공단 내에서 각 기업들이 드러내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과도한 노동시간, 조잡한 근로환경 등으로 온갖 수모와 수탈을 겪으면서도 조금만 현실을 지적하면 박해를 받고 용공시 당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찍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각 회사는 항시 신자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심지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천주교란게 밝혀지면 입사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충분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의 60%이상이 10만원이하의 저

임금을 받고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 시간 이후 출근이 월 200 시간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휴식과 수면이 철저히 빼앗기는 피를 말리는 주야 연속근무가 강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근로자들인 바로 여러분이 겪고있는 문제들의 일부입니다. 농민이나 학생들이 당하는 고통들도 이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10년 공부가 하룻밤에 허사가 되더라도 뛰어들었다가 어리석게도 1년도 버티지 못한 저희선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에 동료사제들이 저를 부를때 “李神父”가 아닌 “솔터”라고 부르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름 한무더위에 한 그루의 소나무는 그 더위를 막아주고 또 그늘 밑에서 편히 쉬게까지 해주는 희생적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솔터”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힘없고 고통받는 양들의 보호와 권리회복을 위해 외치는 대변자 또 그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뛰면서 어떤 박해나 고통을 감히 받을 수 있는 용기있고 고통받는 야훼의 종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즈음 미사때마다 성전에 모여오는 착하고 순한 양떼들 눈에서 피로와 체념과 좌절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의연하고 굳건하게 서있는 푸른 솔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부족한 주님의 종을 위하여 격려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사제로서 있겠금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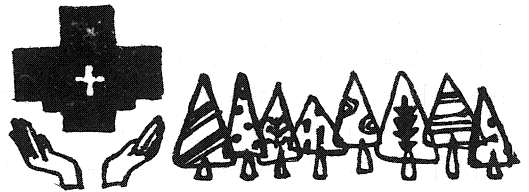
신 경(信經)

신경은 라틴말로 「상징(Symbolum)·표시·신분증명서·계약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3세기 성 치쁘리아노께서 처음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었다. 그 까닭은 이 믿음조항을 입으로 고백하므로 곧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상징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신경이 여러개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세가지 신경뿐이다.

그 첫째는 「사도신경」이요, 둘째의 것은 아타나시오 성인의 성삼교리(聖三敎理)가 골자로 되어있는 「성 아타나시오 신경」이며, 셋째의 것은 「니케노 콘스탄티노폴리따노 신경」이다.

그러니까 신경을 외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가톨릭의 참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표시가 된다.

— 주요 기도문 풀이중에서 —



7 월 전례 해설 및 독서자

구 분	해 설	1 독 서	2 독 서
1 주	주 전 경섭 (다미아노)	김 용국 (다 두)	김 형임 (세시리아)
	야 양 광남 (요 한)	황 상규 (비 오)	천 이연 (루 치 아)
2 주	주 이 갑철 (분 도)	박 병목 (안드레아)	장 매자 (로 사)
	야 안 경립 (에드워드)	김 영진 (보니파시오)	안 영옥 (마 리 아)
3 주	주 정 동화 (토 마 스)	신 수범 (베네딕도)	이 정희 (더모데아)
	야 전 동일 (요한보스끄)	김 종석 (페르디난도)	이 일금 (젬 마)
4 주	주 김 원술 (루치아노)	정 완진 (스테파노)	이 영옥 (베로니카)
	야 전 영태 (엠마누엘)	남 시완 (시 몬)	김 수자 (테 레 사)

(7 월) 행사표

일	요일	축 일	행 사	비 고
1	월	성녀 에스텔	이동신부인수인제 (교구청 10:30) 대 학생연합회하계연수회 사제평의회 (교구청 10:30) (예수의작은마을)	
2	화		평신도학교 (교구청 19:30) "	
3	수	성 토마 사도 축일	구. 반장회의 (10:30) 유아실 "	
4	목	루시파니아의성녀 엘리사벳	(이동신부부임) 평신도학교 (정호경신부특강 교구청 19:30)	
5	금	성안드레아김대건사제순교자대축일	제대회 (10:30) 지하실	
6	토	성녀도미니카 성녀 마리아고렷머	부산, 대구, 마산가톨릭교수회합동퍼정 (여성회관 15:00)	청소 1 구역 3. 4 반
7	일	성안드레아김대건사제순교자대축일미사	첫 영성체 및 어린이 영세식 (9:00) 여름성경학교연수회 (교구청 10:00) 연평회 (낮 미사후)	
8	월		평신도학교 제 1 기 수료식 (교구청 20:00) 신학생 하계연수회 (거제, 명사)	
9	화		" 가정미사 / 롯데 APT	
10	수	성 엠마누엘 성녀 스텔라	" 합동혼배자면담 (저녁미사후)	
11	목	성 베네딕도 아파스 기념	"	
13	토	성 헨리꼬에우레니가 사라		청소 : 1 구역 5. 6 반
14	일	연중 제 15 주일		
15	월	성 보나벤투라		
17	수	성 알렉시오		
18	목			음 6.1
19	금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		
20	토	성 예로니모		청소 : 1 구역 7. 8 반 초복
21	일	연중 제 16 주일 다니엘	푸리아 평의회 (오후 2 시 지하강당)	
22	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23	화	성녀 바르짚다		대 서
24	수			
25	목	성 야고보사도 축일	푸르실료 (남성 43 차 교구청) 여름성경학교 시작	
26	금	성 요아킴과 안나 (성모의부모)	"	
27	토	성 루돌프	" 합동혼배식 (7:30)	청소 : 1 구역 9. 10 반
28	일	연중 제 17 주일 성 삼손 주교	"	
29	월	성녀 마르타 세라피나	중고생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시작. 여름성경학교의 밤 저녁 7:30	
30	화			중 복
31	수	성 이냐시오 로울라 사제 기념		



[본당 신심단체 안내]

▲ 레지오 마리에

한마디로 “마리아의 군대” !
평신도들의 사도적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며, 이 조직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가장 풍부히 받고 있는 단체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21년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된지 40년후에 개최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은 레지오 마리아를 “가톨릭 활동의 본보기”로 내세웠습니다.

또 1951년 이래 중공정권에 의하여 박해받는 중국교회는 3천명 이상의 레지오 단원들이 순교하였다 합니다.

10년, 20년, 30년씩 활동하는 단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레지오 마리아는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본당일수록 그 본당은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반송 본당에서도 11개 Pr. 이 (150명)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단원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환영합니다. 성모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거나 빠르게 입단을 희망하시는 교형 자매께서는 현재 본당내 다음과 같이 여러 빠르게 이 매주 활동하고 있으니 그시간에 나오셔서 참관하시면 친절히 안내할 것입니다.

Pr 호도	단원수	구성 인원	모임시간
다위의 탑	20	장년 혼성	목 20:00
사랑하올 어머니	14	청 장년 혼성	수 20:00
순교자들의 모 후	17	”	화 20:00
정의의 거울	12	”	금 20:00
그리스도의 어머니	17	주부	목 14:30
결백하신 어머니	8	”	목 10:30
모든 성인들의 모후	10	주부 (현대차량)	수 10:00
예언자들의 모후	13	청 장년 혼성	수 20:30
셋 별	18	”	일 17:50
순결하신 어머니	11	주부	목 14:00
구세주의 어머니	14	”	목 14:00

소 식 란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25 (木) ~ 7/29 (月)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학부모되시는 분들뿐 아니라 전체 신자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요망됩니다.

교사들이 노력하시지만 부모님들의 손길이 기다려지는 데가 많습니다. 시간을 내시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 후원해 주실분 기다립니다.

◎ 중고생 (하기수련대회) 여름 성경학교

평소 학업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중고등 학생들의 집중 신앙교육인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대회가 7/29 ~ 8/3 가질 계획입니다.

1차 본당에서의 신앙교육과 2차 야외캠프를 통한 자연속에서의 신심 수련대회가 치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신심단체 가입문제

각기 신앙생활의 정상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신자 신심단체 가입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남자 승훈회 (35세이하)
하상회 (35세이상)
- 여자 제대회 (20대주부)
성모회 (30대주부)
테레사회 (40대주부)
- 청 년 회 (미혼 남녀신자)
- 중·고등부 학생회

◎ 본당 증축 공사

- 성당 내부 확장 및 전례용 의자와 교백소 설치
- 성당 공동 주방 공사
- 옥상 회의실 공사
- 성당 울타리 공사

등에 1,2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각 반별 개인별로 부담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7월 반기도회 일정

1구역 1반	9일	장 데레사 맥	83-1294
" 4 "	"	26동 112호	
" 5 "	8일	배중근 (라이몬드맥)	84-6114
	10시		
2구역 1반	5일	원 미카엘라 맥	
" 2 "	16일	117동-104호	
	8시	박승문 (스테파노맥)	82-5380
2구역 3반	8일	119-406	
		김성계 (카타리나맥)	84-4430
2구역 4반	5일	고귀남 (제노베파맥)	82-8349
3구역 3반	8일	전영갑 (베드로맥)	
3구역 5반	15일	강경숙 (세실리아맥)	84-5617
3구역 6반	15일	윤영숙 (마리안나맥)	용지
			328-201
4구역 2반	15일	오인옥 (로사)	
5구역 3반	10일	박진국 (도밍고)	84-8520
	20시	24동 303호	
5구역 4반	9일	천나미 (테보라)	84-1590

성호경이 가지는 두 가지 뜻

첫째, 십자 모양을 긋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만민의 죄를 구속하셨다. 십자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표시한다. 십자성호는 첫째로 교우들의 드러나는 바깥 표시이다. 둘째,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이가 가르친 교리 중에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알아듣기 어려운 교리 중의 하나가 곧 하나이신 하느님께서 성부·성자·성신 세위를 가지신다는 삼위일체 교리이다. 우리는 성호경을 칠때 성부·성자·성신의 이름을 부른다. 비록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나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그대로 승복하고 믿겠다는 뜻에서 성호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한다.

지 혜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1:5)

목 상

지식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지식과 사실을 응용하는 것(?)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겸 손



“내 마음이 양순하고 겸손함을 내게 배우
라. 이에 너희 영혼에 평안함을 얻으리라.”

(마태오 11장 29절)

겸손은 아주 단순한 덕이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
함을 인식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참 겸손을 지닌 신앙인은 똑똑한체 하지 않
는 동시에 어리석은 자처럼 꾸미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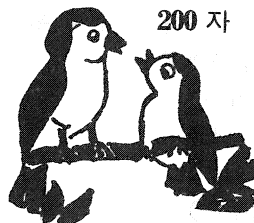
어쩌면 겸손의 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생을 통한 과업이 아닌가 한다.

이는 총명한체 하는 것이 겸손을 거스린다
면 어리석은 자로 꾸미는 것 또한 단순함과
솔직함을 거스림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참된 겸손은 자학적인 열등감이나
무분별, 혹은 착란증이나 아부적 근성에서 나
오는 자기 비하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참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다른 이의 인격을 거슬러

자기 자신의 거짓 인격을 결코 내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
려면 자신은 가난하다는 것, 본질적으로 약하
다는 것, 세속의 아첨에 속기 쉽다는 것, 별것
도 아닌 노력을 크게 보려는 자애심이 있다
는 자아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우
리들)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항구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겸손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원고를 찾습니다】

★ 솔터월보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고 참된 신앙인의 체험과 주님
의 사업에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담은 아
름다운 이야기, 본당의 제반사업에 대한 의견
등 우리 본당 형제·자매님들의 소중한 원고
를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월보 편집에 최선을 다 하겠
읍니다.



200자 원고지 8매 정도

여름방학 학생 대모집

셈 벳 주 산 학 원

대상: 유 치 부 (5~7세)
국교생부 (1~6학년)
중고일반부

반송종합시장 2층

TEL 83 - 6304

원장 조영미(비비안나)